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나도 그분처럼 변하고 싶다



내 머리 위에는 어린 시절부터 커다랗고 무거운 물음표가 늘 따라 다녔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가 별로 없고 삶을 살아갈만한 기운이 없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부가 되면 좀 나아질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은 마음에 일종의 긴장상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긴장은 빨리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내면의 이런 긴장이 다양한 형태의 욕망으로 흔히 분출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욕망을 해소하면 삶의 근본적인 이 긴장감이 해소될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 욕망은 내 삶의 화두였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욕망을 보면서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늘 갈망하면서만 살도록 만들어 놓치는 않았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러다가 끝나는 것이 삶인가?’라는 의문들이 늘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욕망들보다 더 강한 욕구가 내 안에서 올라오고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입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욕구, 즉 새로워지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본래 나의 모습

으로 변화하고픈 욕구였습니다. 늘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왔던 내 모습에서 그런 갈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본래의 내 모습을 되찾도록 부추기는 충동이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번민하게 만들었던 욕망들은 내면의 결핍에서 비롯된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욕구들이었다면 새로워지고 싶은 욕구는 내 안에 계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이고 긍정적인 욕구였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은 욕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니 다른 욕망들은 점점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욕망들 때문에 생기는 번민이 예전보다 줄어드니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는 세 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산은 고대 종교나 신화에서 인간이 신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올림푸스 산은 신들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모세를 비롯한 예언자들은 산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산은 실제의 산이라기 보다는 하느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에 오른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욕구들로 가득 찬 삶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찾아가는 종교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예수님의 눈부신 변모를 보고 결국 하느님의 소리까지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새로워지고 싶은 강한 욕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느낀 제자들의 감동은 사실 예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 안에서 올라오는 “나도 이분처럼 변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변모를 통해 그 욕구를 반영해주는 좋은 거울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욕구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위대한 사람을 통해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 안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멋진 욕구가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는 황홀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황홀감에만 빠져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어차피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다시 세속적이고 부정적인 욕망들로 번민하게 만드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변모에 대한 이 강렬한 체험은 세상이 주는 번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구담 본당 김기환 요셉 신부



전 레

입당 전 안내

교형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친아들을 봉헌하러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친아들을 인류를 위해 내놓으시려는 하느님과 그 뜻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인류 구원을 위해 내주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입당성가 : 122번 ‘구원의 십자가’

본기도

† 하느님,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따르라고 명하셨으니 하느님의 말씀으로 저희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영혼의 눈을 맑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창세기 22장 1절-2절.9절.10절-13절.15절-18절

안 내 :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느님께 바치려 산에 오릅니다.

묵 상 :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이사악 봉헌을 결심합니다. 그의 믿음은 협상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 삶을 내어놓는 신앙 그 자체입니다.

화 답 송 :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2독서 : 로마서 8장 31절-34절

안 내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묵 상 :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마저 내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간구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복음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 마르코 9장 2절-10절

강 론 : ‘나도 그분처럼 변하고 싶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15번 ‘영원하신 성부’

영성체성가 : 174번 ‘사랑의 신비’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아들마저도 내놓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침묵>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을 오르는 아브라함과

수난을 준비하며 산을 오르는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 모든 걸 맡기십니다.

<침묵>

은총의 사순시기를 통해 하느님의 의로움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해 가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19번 ‘주님은 우리 위해’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49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 림

■ 제8기 안동교구 신앙대학 신입생 모집

- 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
- 원서교부 : 본당신부님 혹은 교구 홈페이지
- 입학정원 : 50명
- 수업료 : 18만원(입학금 3만원 포함)
- 과정 : 구약성경 입문, 신약성경 입문, 그리스도론, 성사론, 교회사, 교회론, 윤리신학, 전례학, 교회법, 영성신학 (2년 과정)
- 교육장소 : 안동교구청 1층 강당

■ 지구 구역·반장연수

- 문경지구 : 2월 25일(주일) 점촌동 성당
- 상주지구 : 3월 4일(주일) 계림동 성당
- 북부지구 : 3월 11일(주일) 휴천동 성당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필기도구, 미사준비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주일학교 수녀모임

- 일시 : 3월 5일(월) 13:30 - 6일(화) 13:00
- 장소 : 베들레헴 공동체(포항)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 참가비 : 45,000원
- 신청 : 2월 28일(화) 사목국으로

■ 예비신학생 개강미사

- 일시 : 3월 10일(토) 14:00
- 장소 : 교구청

■ 2018년 열린 성경 강좌 1

- 일시 : 3월 12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준비물 : 신, 구약 성경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교구 수도자 모임

- 일시 : 3월 13일(화) 10:30 - 16:00
- 장소 : 교구청
- 대상 : 본당, 공소(농민)사목 수녀, 출판 및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수녀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도구
- 신청 : 3월 8일(목)까지 사목국

■ 2018년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등록

- 대상 : 사제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방법 : 등록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접수
- 등록금 : 1인 50,000원(1년)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2018년 안동교구 “여학생 수도 성소자” 등록

- 대상 :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여학생(중1~고3)과 일반인
- 등록금 : 1인 50,000원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제4회 한국청년대회 참가자 모집

- 주제 :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
- 일시 : 8월 11일(토) - 15일(수) 4박 5일
- 장소 : 서울대학교
- 대상 : 만 16세(고1) ~ 만 39세
- 참가비 : 20만원

(참가비 15만원+교구회비 5만원)

- 신청 : 3월 7일(수)까지
- 문의 : 사목국 858-3114~5

* 교구 홈페이지(<http://www.acatholic.or.kr>)에 자세한 일정과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정물(십자가, 묵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윤진 율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2월 26일(월) 20:0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이상욱 엘리야(서울대학교)

■ 2018년도 레지오 마리아 Pr. 간부 직책 교육

- 일시 : 3월 3일(토) 10:00 - 14:40
- 장소 : 가톨릭장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Pr. 간부 (가능하면 신임 Pr. 단장, 부단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준비물 : 활동수첩, 묵주, 필기도구, 일레회의 준비(해당자)
- 문의 : 장주현 프란치스코 010-8851-4467

■ 청년연합회 합동미사

- 일시 : 3월 4일(주일) 15:00
- 장소 : 교구청
- 준비물 : 미사준비
- 신청 : 2월 26일(월)까지 사목국

■ 갈전 본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꽃감 판매

- 건지 1.5Kg 이상, 30개~40개 3만원
- 물 좋고 공기 맑은 청정 예천 감만을 엄선하여 햇살 가득 담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전통방식으로 만들어 맛과 향이 좋습니다.
- 담당자 : 김선희 로사 010-4945-9804
- 계좌 : 농협 351-0922-4848-43 새단법인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6장 사목적 전망

위기와 근심과 어려움에 빛 비추기

일부 복잡한 상황들

247. “혼종혼과 관련한 문제들은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가톨릭 신자와 다른 교단의 세례 신자와의 혼인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내재적 가치와 일치 운동에 대한 기여를 위해서 개발될 수 있고 이용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혼인과 혼인식을 준비하는 당시부터 가톨릭 사제와 비가톨릭 교직자 사이에 진실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가정공동체’, 78항) 성찬례에 함께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혼인하는 비가톨릭 당사자가 영성체를 하도록 허락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두 사람의 세례 받은 신자가 그리스도교적 혼인성사를 받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동방 교회 신자와 다른 교회 신자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내려져야 합니다. 비록 혼종혼에서 부부가 세례성사와 혼인성사를 나누어 갖는다 해도, 성체의 나눔은 예외적이어야 하고, 각 경우에 …… 위에서 말한 규정도 준수되어야 합니다’(교황청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 159-160항 참조).”

248. “타종교 혼인은 일상의 삶에서 종교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자리가 됩니다. …… 이러한 혼인은 가정의 그리스도인 정체성과 자녀의 신앙 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선교 지역이든 심지어 오랜 그리스도 전통을 따르는 나라든 타종교 혼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차별화된 사목의 제공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일부 국가에서,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혼인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개종하여야 하고, 결국 교파가 달라 교회법적 혼인을 거행할 수 없으며 그들의 자녀를 세례 받게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이의 종교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혼인을 하는 이에게 혼인 이전의 시기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가톨릭 신자와 비신자로 이루어진 부부와 가정은 특별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녀의 그리스도 신앙 교육을 위하여 복음이 그 가정 상황에 스며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249. “복잡한 혼인 상황에 있는 이들이 세례를 받고자 할 때 특정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두 사람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법적인 혼인을 한 이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교는 그 부부의 영적 안녕에 적절한 사목적 식별을 하여야 합니다.”

250. 교회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께 맞갖은 자세를 취합니다. 시노드 교부들과 함께 저는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쉽지 않은 상황, 곧 가족들 가운데 동성애 성향을 지닌 이가 있는 가정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이가 자신의 성적 성향에 관계없이 그 존엄을 존중받고 사려 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 특히 모든 형태의 공격과 폭력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피하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가정과 관련하여 그들을 존중하는 동반을 하여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51. 가정의 존엄과 사명에 관한 논의에서 시노드 교부들은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지역 교회가 압력을 받거나 국제기구들이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제도화하는 법률의 제정을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경제 원조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252. 외부모 가정은 흔히 “생물학적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정의 일원이 되고자 하지 않을 때,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자녀들을 데리고 도피하여야 하는 폭력적 상황일 때,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사망하였을 때, 부모 가운데 한 명이 가정을 버렸을 때, 그 밖에 여러 상황에서”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외부모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다른 가정과 본당의 사목 단체의 도움과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은 자주 경제적 어려움, 고용 불안, 자녀 양육 문제, 무주택으로 흔히 더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 다음에 계속 -



주객전도(主客顛倒)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지역에 오래 살다보니 여러 행사에 초청을 받게 된다. 특정단체의 이·취임식이나 기념행사가 대부분이다. 가끔씩은 교양강좌나 예술행사도 있다. 다녀보면 흐뭇한 행사가 많지만 아쉬운 점도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 위주의 행사인 행이다. 주객이 전도되어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존경하는 시인의 시집출판기념회도 그랬다. 본인은 극구 사양했지만 지역문인단체에서 권해 문학지 출판기념회와 함께한 행사였다. 그 자리에는 시인과 친분이 두터운 유명 시인들도 여러 명 참석을 했다. 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다. 전문가의 눈에 비친 시와 시인의 삶이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내 생각과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다. 등단 30년이 되어가고 시를 쓰지 40년을 넘었으니 애깃거리도 많을 것 같아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축사에 밀려 정작 시인들이 말할 기회는 없었다. 문인들의 잔치에 가서 정치인들의 얘기만 듣고 온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시인의 입을 통해 본인이 걸어온 문학의 길에 대해서 듣게 된 것이었다. 꽃길만 걸어온 줄 알았더니 멀고도 고단한 여정이었다.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40년 시인의 길을 개척해 온 것이다. 삶의 흔적과 고뇌가 고스란히 시에 녹아있음을 시인의 고백으로 뚜렷이 알게 되었다. 시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지인들의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기까지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속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 고뇌와 갈등이 농축되어 있고 작가의 혼이 담겨있다. 귀하게 마련한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축하와 격려일 것이다.

행사가 변질되고 있는 원인은 복잡적이다. 주최 측의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다. 표를 의식해야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행사는 잘 차려진 잔치 상이다.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기회다. 그래도 한마디 해야 할 자리가 있고 조용히 축하만 해야 할 곳이 있다. 명예와 자존심을 중시하는 예술단체의 행사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곳에서는 예술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다.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성경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존경을 받는다고 했다. 때로는 겸양의 태도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예술행사장에서 본 모 정치인의 모습은 그래서 더 신선했다. 그분은 사회자가 일부러 인사말을 하라고 시키는데도 끝까지 사양을 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만 했을 뿐이다. 행사가 끝나자 입구에 서서 인사까지 했다. 나는 그게 고맙고 반가워서 일부러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당연한 일인데도 그가 멋있어 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말을 줄이라고 옛 성현들은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너도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 하고 존재감을 나타내려 한다. 말하기 보다는 들어주고,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은 여전히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다.

내가 바라는 사회는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전문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나와 다름을 인식하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더 조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행사를 다니며 겸양의 미덕을 배우고 있다.